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7 뤼양의 용문석굴

당나라 옷을 입은 용문석굴



뤼양의 용문석굴은 높이 20m로 당나라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뤼양(洛陽, 낙양)은 중국 불교가 꽃피던 북위 시대의 정점에 서있었다. 정관(貞觀) 원년(627)에 뤼양은 전란의 상처를 딛고 당나라 동쪽의 수도라는 뜻의 '동도(東都)'로 불리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특히 축전무후 시대에는 엄청난 활력을 가진 도시로 탈바꿈 했다. 축전무후의 본래 고향이 뤼양인 탓도 있었지만, 장안(長安)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만들고자 한 의지도 결합됐다. 이런 흐름이 용문석굴에 담겨있다.

지금도 용문석굴을 찾는 이들은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불상은 20m크기로 그 모습은 당나라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단단한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 용문석굴 중앙에 높이 새겨진 노사나

용문석굴, 뤼양에 불교문화 다시 꽃피워 당나라 시대의 불교 신앙의 흐름 보여줘

불(盧舍那佛)의 모습은 경외심이 들게 한다. 불상의 북쪽 대좌에는 불상을 조성한 연유가 담긴 '대노사나상감기(大盧舍那像龕記)'가 새겨져 있다.

불상은 '당의 고종과 축전무후가 함형(咸亨) 3년(672)에 발원해 상원2년(675)에 완성됐다'고 기록돼 있다. 불상의 높이는 20.16m이며,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 두 분의 협시보살상, 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용문석굴은 인도로부터 넘어온 불상의 양식이 중국적으로 수용돼,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용문석굴은 북위시대 태화 19년(495)에서부터 영희 4년(535)년 까지 조성됐다. 총 200여구의 불상이 조성됐는데, 석가모니불이 43존, 미륵상이 35존, 관음상은 19존 정도가 조성됐다. 이런 불

상조성은 북위시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구원과 미래의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나라 시대에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한 조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앞선 시대의 신앙적 흐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화엄 신앙인 노사나불이나 정토신앙에 바탕을 둔 아미타불, 밀교와 연관이 있는 불상들이 용문석굴을 통해 당나라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미륵정토를 신앙하던 모습이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신앙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말법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시작된 지장신앙도 이러한 불교 신앙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노사나불 같은 불상이 조상된 것도 국가적으로 성행한 화엄 신앙에 힘입은 것이다. 이밖에 선종에 영향을 받은 나한상들도 용문석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용문석굴은 정관 15년(641)에 소규모로 개착됐으나 끝을 다 맺지 못해, 빈양북동과 남동에 당나라 흔적이 남겨지게 됐다. 용문석굴은 당나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화려한 종파적 특색을 지니게 됐다. 중국불교의 모습과 인도와 중국적 변용을 거친 불교미술이 혼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꽃바람

훈훈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은 꽃을 피게 합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지 않을 것이며 향기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가꾸어 나누고자 하는 큰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앞에서 흐트러진 옷맵시와 마음을 다듬어 봅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9 조선 청허휴정 선사 '사야정(四也亭)'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

水也僧眼碧 (수야승안벽)
山也佛頭靑 (산야불두청)
月也一心印 (월야일심인)
雲也萬卷經 (운야만권경)

물은 스님의 푸른 눈
산은 부처님의 푸른 머리
달은 한 마음의 도장
구름은 만권의 경전

조선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스님은 오랫동안 묘향산에 머물렀으므로 서산(西山)이라고도 한다. 보우 스님이 부활한 승과(僧科)에 합격해 선교양종관사가 됐으며 임진왜란을 당해 승병을 일으켜 호국불교사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선가귀감(禪家龜鑑)>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겨 선교겸수(禪教兼修)를 주장하는 등 조선 후기 불교사상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스님은 "모든 병은 중생의 마음에

있으니 어찌 수고로이 많은 글자를 모으겠는가. 오연절구의 시로 평생의 뜻을 다 쓸 수 있다"고 여겨 오연절구를 즐겨 지었다. 때문에 선가문학의 집성지라고 할 만큼 시문으로 주목받는다. 이 시는 스님의 작시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교나 수식에 힘쓰지 않은 간결함과 진솔함이 돋보인다. 물에서 눈 밝은[淸眼] 스님을 보고 산에서 부처님의 삭발한 파르스름한 빛을 본단다. 물은 항상 흐

르며 번뇌를 청정하게 씻어준다. 성성하게 깨어있는 눈 푸른 납자의 모습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여여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동함을 비유했다. 달은 불성·자성을 상징한다. 하나의 달이 천강에 각각 비추되 그 달은 하나일 뿐[月印千江]이다. 구름은 항상 변화하며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희고 깨끗해 조금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체를 상징한다. 청산과 백운과 수월은 모두 심인(心印)의 표상으로서 상(相)과 체(體)를 중첩시켜 중생과 불(佛)이 다르지 않은 불법의 요체를 해맑은 아이의 시상(詩想)으로 간결하면서도 쉽게 보여주었다. 불날 산수(山水)를 찾아 이 시를 읊조려 보자.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